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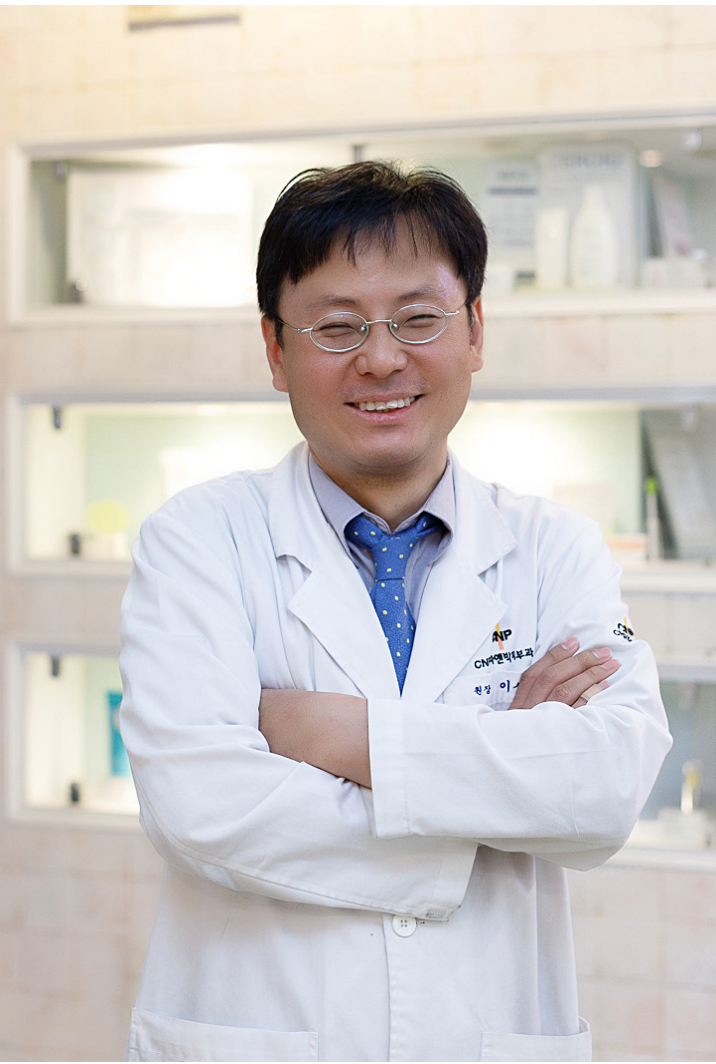
# 지역 피부주치의는 무한 영광, 임상 노하우는 과학이다

평촌점 이상정 피부과 전문의 (대표 원장)

2005년 개원. 횡수로 따지면 15년  
이나 된 세월이지만 평촌차앤박피  
부과의 시간은 지금도 똑딱 똑딱  
쉽없이 흐르고 있다. 주변 상가가  
오피스텔로 바뀌고 유명 백화점들  
이 앞다퉈 들어 오는 변화가가 된  
지 오래다. 그러나 어김없이 평촌  
차앤박피부과의 아침은 밝아오고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의 발걸음은  
가볍다. 이상정 피부과 전문의의  
미소 속에 평촌차앤박피부과는 시  
나브로 편안한 피부 안식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의 내원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동안 학업이나 스펙 쌓기 때문에 방치했던 흉터 치료 때문이다. 그들이 시술 상담 중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시술 후의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다. 피부 과학의 발전은 탁월한 치료 효과의 임상 노하우는 물론 시술 전후의 불편사항까지 고려한다. 가장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미리 예측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본원에서는 진피층을 재생하는 치료로 다양한 질환에 효과를 가져왔던 노하우와 피코초 기술을 더해 결과가 좋다.

## 지역 피부주치의가 된다는 것은 영광이다

이렇듯 한 지역의 피부주치의가 된다는 것은 피부과 전문의로서의 소명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환자들을 꾸준히 만나고 함께 해오면서 그들의 필요를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지역 피부주치의로서의 내공이 생긴 것.

“피부 건강은 꾸준함에 있어요. 꾸준함은 배신하지 않는 것이죠.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클렌징 철저하게 하기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꾸준함에서부터 트러블 발생시 즉시 치료를 받는 등의 적극적인 꾸준함까지. 이 꾸준함이 모여 습관이 되고 습관은 피부 건강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앞으로도 평촌차앤박피부과는 지역의 피부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며 피부건강을 수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피부 과학을 실천하는 현장인 평촌차앤박피부과는 그동안 내원한 환자와 의료 서비스를 술선수범하는 직원들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의 양상블로 만들어낸 피부 안식처의 다른 이름이다. 모두의 꾸준함이 이뤄낸 편안함이다. (끝)

## 특별할 게 없는 15주년, 매 순간이 중요하다

“많이 바뀌었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하듯 평촌도 발전하고 변한 것 같습니다. 병원 역시 15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내원하는 환자들의 연령대도 바뀌고 성별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할 게 없는 15주년이라고 짐짓 의미를 축소하지만 바꾸어 말하면 하루하루 소중하지 않았던 날이 없었다는 의미이리라. 환자들의 연령대가 바뀌었다는 것은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피부 고민의 영역이 확장되었음을, 성별의 다양성은 남자 환자들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고 부연 설명하였다. 지역 피부과들의 여러 경쟁 속에서도 차앤박피부과만의 독보적인 영역인 여드름, 기미색소 그리고 여드름 흉터 결과가 피부 과학의 발전만큼이나 긍정적이라는 부분은 이상정 피부과 전문의의 자부심이다. 물론 직원들과 전문의의 조언을 잘 따라와 준 환자들의 역할이 주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 피부 과학의 진화 속 임상 노하우와 결합하여 시너지를 내다 (피코초 레이저)

최근에는 면접이나 웨딩을 앞두고 20대 남자 환자들

